코오롱-휴비스 디지털 경영 펼친다!

ERP · SCM 등 정보화솔루션 구축 … 효성 2003년 총 200억원 투자

화학섬유기업들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정보화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디지털 경영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오롱은 2003년부터 5년 동안 총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사내 정보시스템 재구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우선 2003년 약 100억원을 투입해 인사, 회계, 구매 등 각 분야 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2004년에는 ERP 상의 정보 활용도를 높여주는 DWH(Aata Warehouse)와 함께 공급망관리(SCM)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외환위기 이후 주춤해졌던 정보화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정보화 재구축으로 재고감소, 실시간 판매실적 집계 등이 가능해져 경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2002년 ERP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2003년에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섬유부문의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 산업자재부문의 공급망관리시스템(SCM), 중공업부문의 전자구매시스템(e-Procurement) 등 2003년 총 200억원을 들여 사업부별로 필요한 정보화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마이판, 화인스타, 스완카페트, 토프론 등 각종 첨단 섬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별 브랜드 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다.

Polyester 전문기업 휴비스도 국내외 전 사업장에 걸친 디지털 경영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휴비스는 2001년부터 추진한 국내 사업장 통합생산관리시스템구축을 2003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시스템 상의 자료를 임원들에게 제공해 업무결정의 신속도를 높이는 경영자정보시스템(EIS)을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중국 단섬유 생산공장 등 해외 주요 거점과 국내 본사를 총괄하는 전산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Chemical Journal 2003/02/13>